

美 방산기업·韓 중소기업 간 협력의 장 마련

- 방위사업청, GE Aerospace사 절충교역 사업설명회 개최 -
- 90여 개 국내 중소기업, 국제 방산 공급망 참여 기회 모색 -

방위사업청은 3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미국 방산기업 GE Aerospace와 국내 중소기업 간 산업협력을 위한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. 절충교역은 해외에서 무기나 장비를 도입할 때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 수출 등의 반대 급부를 확보하는 교역 방식입니다.

이번 설명회는 GE Aerospace와 국내 중소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, 절충교역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의 세계 방산 공급망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GE Aerospace는 군용항공기 엔진과 함정용 가스터빈 등을 개발·생산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입니다.

방산혁신기업을 포함한 90여 개 중소기업이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여 GE Aerospace가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(소재, 주조·단조, 기계가공 등)를 공유받고, 향후 기술협력 및 장기적인 공급망 참여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

이형석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“절충교역은 단순한 반대급부 확보를 넘어 국내기업의 세계적 공급망 진입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수단”이라며, “앞으로도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방산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하고, 국제적 방산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고 밝혔습니다. <끝>

담당 부서	방위산업진흥국 방위산업협력과	책임자	국(부) 장	이형석 (02-2079-4530)
		담당자	과(팀) 장	김평화 (02-2079-6340)